

STRATEGY 21

통권44호 Vol. 21, No.2, Winter 2018

조선 세종시대 병선(兵船)의 해방(海防)전략 · 전술

민 장 원*

I. 머리말

II. 여말선초 대왜(對倭) 정책과 해상방어체제의 정비

III. 세종대 대마도 정벌 이후 병선 전술의 변화

IV. 병선의 전진배치와 방어거점의 이동

V. 맺음말

* 해군 대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중세사) 석사, 現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

I. 머리말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지형학적으로 바다로부터의 외침(外侵)이 잦았다. 이에 따라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해방(海防)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말선초(麗末鮮初) 왜구(倭寇)의 잦은 침입과 내륙 침탈로 해방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¹⁾ 일본 열도의 서쪽 연안 일대로부터 비롯된 왜구의 침입은 고려 말, 충정왕 2년(1350)부터 본격화되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조정은 약 20여 년간 수군을 활용하는 대신 ‘육전주의(陸戰主義)’를 고수하였다.³⁾

공민왕 재위 말에 이르러 왜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병선(兵船)’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왜(對倭) 해방책(海防策)의 전환은 우왕 3~4년(1377~1378) 각 도로 하여금 병선을 건조하도록 하고, 병선으로 강화부와 수원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전과(戰果)를 거두는 등 그 실효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⁴⁾

주변 정세와 적의 위협에 따라 해방의 완급(緩急)을 달리해 왔지만, 조선 정부 또한 해양으로부터 투사되어 오는 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⁵⁾ 선초(鮮初) 육군과 별개의 독립된 병종(兵種)으로서 수군 제도가 정착, 정비되기 시작한 것이 그 사실을 방증한다.⁶⁾

1) 여말선초 왜구(倭寇)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석호, 1959, 「여말 선초의 왜구와 그 대책」, 『국가상의 제문제』 3, 국사편찬위원회; 孫弘烈, 1975, 「高麗末期의 倭寇」, 『史學志』 9; 羅鍾宇, 1980,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 -倭寇을 中心으로-」, 『全北史學』 4; 國防軍史研究所, 1993, 「倭寇討伐史」, 『民族戰亂史』 9; 나중우, 1994, 「흥건적과 왜구」, 『한국사』 20(고려 후기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390~415쪽; 하우봉, 1995,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367~410쪽.

2) 孫弘烈, 1978,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湖西史學』 6, 112쪽.

3) 여기서 “‘육전주의(陸戰主義)’를 고수하였다.”라는 서술은 고려 조정이 해상방어를 게을리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적합한 ‘해방(海防)’의 방법론으로서 해전(海戰)보다는 육전(陸戰)을 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4) 林容漢, 2005,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군사』 54, 286~299쪽.

5) 조선 후기의 자료인 『만기요람』에는 “우리나라는 동·남·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동과 남은 왜(倭)와 마주하고, 남과 서는 중국의 오(吳)·월(越)·연(燕)·제(齊)의 지방과 마주하였다. 그러므로 해방(海防)을 설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萬機要覽』, 「軍政篇 4」, 海防 “我國東南西三面環海 東及南距倭 又南及西與中國之吳·越·燕·齊地方相距 故設置海防.”).

6) 方相鉉, 1991, 『朝鮮初期 水軍制度』, 民族文化社, 7쪽 “해방(海防)을 담당하는 수군체제(水軍體制)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기(高麗末期)의 일이며, 그것도 육군과는 별개의 독립된 병종으로서 수군제도(水軍制度)가 정착 발전된 것은 조선초기(朝鮮初期)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수군의 병력 모집과 유지에 힘썼으며, 수군이 해전(海戰)을 치르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병선’ 건조에 역점을 두었다.⁷⁾ 이러한 노력은 태종과 세종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었으며, 잘 알려진 대마도 정벌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왜구 억제에 위한 군사행동이었다.⁸⁾ 한편, 세종의 아들 문종 재위 초에는 제주목사 이명겸이 “적을 제어하는 전술로는 수전(水戰)[해전(海戰)] 같은 것이 없다.”⁹⁾라고 하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에 전함(戰艦)[병선(兵船)]을 배치해 줄 것을 청하는 등 병선의 중요성이 다시금 역설(力說)되기도 하였다.

해방(海防)의 방법으로 육전(陸戰)과 해전(海戰)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 혹은 효과적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¹⁰⁾ 여말선초 병선의 건조와 이를 활용한 해상방어체제 구축은 왜구 억제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하다.¹¹⁾ 주목할 점은 이른바 ‘기해동정(己亥東征, 1419)’이 단행되었던 세종대를 전후하여 병선 관련 제도 및 전술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왜선(倭船)보다 빠른 선속(船速)과 내구성(耐久性)을 유지하기 위해 병선을 개량하고 이를 시험 운용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전투 효율성 및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선단(船團)의 구성과 전투 방식을 고민하였다. 그러한 노력과 고민이 실제 전장(戰場)에 적용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전과(戰果)가 조정에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왜구의 침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병선 정비책의 이동 및 최적화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7) 張學根, 1988, 『朝鮮時代海洋防衛史』, 創美社, 87~101쪽 ; 육군군사연구소, 2012, 「해상방어체제의 정비와 수군」, 『한국군사사 5(조선전기 I)』, 육군본부, 392~393쪽.
 8) 대마도 정벌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李銀圭, 1974, 「15世紀初 韓日交涉史 研究-對馬島征伐를 中心으로-」, 『湖西史學』 3 ; 孫弘烈, 1978, 앞의 논문 ; 張學根, 1983, 「朝鮮의 對馬島征伐과 그 支配政策: 對外關係를 中心으로」, 『海士論文集』 18 ; 李相泰, 1988, 「대마도 정벌(對馬島征伐) 고찰」, 『군사』 17 ; 羅鍾宇, 1992, 「朝鮮初期의 對倭寇政策」,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紀念論叢』 ; 國防軍史研究所, 1993, 앞의 책 ; 한문중, 1997, 「朝鮮初期의 倭寇對策과 對馬島征伐」, 『全北史學』 19·20 ; 이규철, 2009,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 장준혁, 2014, 『麗末鮮初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의 대마도정벌』, 『역사와 실학』 53.
 9)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9월 28일(계해).
 10) 해방(海防)은 단지 선박을 이용한 해상방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바다로 침입해 오는 적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것 외에도, 물에 상륙한 적과의 전투를 통해 침공을 저지하는 방편 또한 해방에 속한다. 더 나아가 한정된 자원과 병력으로 여러 방면의 적들과 수륙(水陸) 전쟁을 치러야 했던 당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병선을 증강하여 해상에서 왜구를 차단·봉쇄하는 방식을 주(主) 해방 전술로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는 심고(深考)해 볼 문제이다. 즉 현대의 ‘해군력 강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당시 대외(對外)정세, 전장 환경, 전투 개념, 무기체계, 연락체계 등 제 분야의 시대적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11) 여말선초의 해상방어체제 정비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II장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당시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변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대 병선 운용의 변화상과 그 의미를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¹²⁾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세종대 조(朝)-왜(倭)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 대왜(對倭)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대마도 정벌 이후 본격적인 세종 치세기(治世期)에는 왜구의 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교린책을 통해 대왜(對倭)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초(鮮初) 조정은 왜구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였고, 이러한 대응책이 세종 재위기에 더욱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둘째, 사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세종대 병선 관련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파편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즉 제도적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거(典據)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왕의 연구들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로 성종 7년(147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과 비교하여 약 2~30년 간극의 선박 종류, 수효, 정박지 변화 등을 지표로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¹⁴⁾

보고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세종실록』 상 해상전투 준비과정, 전과 보고, 병선 정박처(碇泊處) 이동 관련 논의 등의 시계열 변화를 전략전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즉 세종대

12)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학근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선시대 ‘해방사(海防史)’의 맥락을 서술하며 수진(海鎭) 관련 진법·훈련 등 전술개발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병선의 운용 방식 변화를 다루었다(張學根, 1988, 앞의 책, 81~101쪽). 또한 방상현은 수군제도를 서술하며 병선의 건조 및 종류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규명하였다(方相鉉, 1991, 앞의 책, 108~135쪽). 아울러 김재근은 조선왕조의 군용 선박의 구조, 규모, 수효, 용도 등의 변천을 조명하였다(金在堊, 1977, 『朝鮮王朝軍艦研究』, 一潮閣).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병선 제도의 통시대적인 변화상과 조선 왕조의 해방 전략전술에 관한 대략적인 방향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단위 부대의 해상전투 양상, 해방 관련 논의 및 조치들의 전략전술적 요소 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13) 예컨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은 대마도 정벌을 통해 알게 된 일본국정을 검토하여 ‘착실한 방어태세’를 갖추는 한편,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확립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朴元鎬, 1995,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사』 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74~276쪽). 여기서 ‘평화적인 우호관계’에 관해서는 사신의 왕래, 연해지방의 교역 및 근해어로 허락, 식량 하사 등의 대외 회유책 연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진 반면, ‘착실한 방어태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없다.

14) 육군군사연구소, 2012, 앞의 책, 402~406쪽.

병선 운용에 대한 고찰은 당시 조선이 구사하고자 했던 해방 전략전술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로써 좁게는 실제 전투를 치르는 단위 부대의 군사행동에서, 넓게는 조선 조정의 군사정책 기조와 당시 조선이 구상하고 있던 구체적인 대외 해방책(海防策)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 장으로 글을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여말선초 왜구 억제를 위한 해상방어체제 구축 배경과 과정의 대략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세종대 ‘기해동정(己亥東征)’을 분수령으로 변화하는 병선의 해상전투 양상을 통해 조선 수군이 모색한 구체적인 해상방어체제의 개념과 해방 전술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외 전술 구사를 위한 병선의 배치 변화 추이를 밝히고, 그것의 전략적 의미를 논한다.

‘평화기를 구가’하던 세종대에도 조선에는 국방을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고를 통해 그러한 움직임이 지니는 해양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고, 동시에 해방 전략전술에 대한 이해의 진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이후 임진왜란을 위시한 왜(倭)·일본(日本)과의 전쟁·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배경과 기반을 설명함에 있어 ‘영웅사관(英雄史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해방사(海防史)’ 흐름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본고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병선’에 대한 정의와 범주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군용(軍用) 선박을 지칭하는 용례로써 ‘병선(兵船)’, ‘전선(戰船)’, ‘전함(戰艦)’, ‘군선(軍船)’, ‘군함(軍艦)’ 등이 사용되었다. 그 중 ‘병선’과 ‘전선’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특정선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전함’과 ‘군함’은 현대의 용어로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¹⁵⁾ 한편, 성종대 완성된 『경국대전』 상에 수군 및 군용 선박의 체제가 정비되고,¹⁶⁾ 그것이 세부적으로 분류, 명시되기 전에는 제반 군용 선박을 포괄하여 ‘병선’이라 지칭하였는데,¹⁷⁾ 본고에서 다룬 세종대 ‘병선’은 어떤 특정 선종(船種)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닌 당시 해상전투에 활용된 여러 선박을 포괄 지칭한 보통명사임을 일러둔다.

15) 金在瑾, 1977, 앞의 책, 9쪽.

16) 『경국대전』 권4, 「병조(兵曹)」 제도병선조(諸道兵船條).

17) 金在瑾, 1977, 앞의 책, 31쪽 ; 육군군사연구소, 2012, 앞의 책, 393쪽.

II. 여말선초 대왜(對倭) 정책과 해상방어체제의 정비

해상방어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시점은 고려 말 ‘해방론(海防論)’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 배경에는 충정왕 2년(1350), 소위 ‘경인(庚寅)의 왜구(倭寇)’¹⁸⁾라 일컫는 신호탄이 있었는데, 경인년(1350)의 침공을 시작으로 잠잠했던 왜구가 다시금 창궐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⁹⁾ 적제는 20여 척에서 많게는 400여 척 규모의 선박을 동원하여 고려의 연안 지역을 침공하였고, 심지어 우왕 10년(1384)에는 왜구가 경기 내륙 지역인 양주(陽州)까지 진출한 바 있다.²⁰⁾

고려 조정은 해방(海防)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쉽사리 수군양성과 해상방어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형편 또한 아니었다. 무엇보다 홍건적 침입(1359~1362), 나하추 침입(1362) 등 북방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²¹⁾ 남쪽의 왜구 방비에만 전력투구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준전시(準戰時) 상황이나 다름없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군사력으로 다면(多面)에서 침공(侵攻)하는 적들을 방어하기에 그나마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활용한 육상방어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후 북방의 전쟁이 종식된 공민왕 22년(1373) 무렵이 되어서야 고려는

18) 『고려사』 권37, 세가(世家)37, 충정왕 2년 2월 “왜구(倭寇)가 고성(固城)·죽림(竹林)·거제(巨濟)를 노략질하자 합포천호(合浦千戶) 최선(崔禪)과 도령(都領) 양관(梁瑄) 등이 전투를 벌여 격파하고 적 300여 급(級)을 죽였다. 왜구의 침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 이는 일본 국내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南北朝) 시대로 쟁란에 휩싸여 있었다. 정권이 양분되어 중앙통치권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과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하급무사 등이 왜구로 전락하였다. 대마(對馬), 일기(壹岐), 송포(松浦) 등지를 근거지로 삼고 식량 약탈, 인민 포획을 주목적으로 고려를 침구하였다(孫弘烈, 1978, 앞의 논문, 112~117쪽).

20) 나중우, 1994, 앞의 책, 392쪽.

시 기	선박규모	침입 지역	시 기	선박규모	침입 지역
충정왕 2년(1350) 6월	20척	합포(合浦)	우왕 2년(1376) 7월	20척	전라도 원수영(元帥營)
공민왕 7년(1358)	400여 척	오입포(五入浦)	" 3년(1377) 6월	200여 척	제주도(濟州島)
" 12년(1363) 4월	213척	교동(喬桐)	" 3년(1377) 10월	40여 척	동래현(東萊縣)
" 13년(1364) 3월	200여 척	갈도(葛島)	" 10년(1384) 5월	27여 척	양주(陽州)
" 23년(1374) 4월	350척	합포(合浦)			

21) 나중우, 1994, 앞의 책, 384~390쪽.

수군 양성과 병선을 활용한 구체적인 ‘해방론’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²²⁾ 예컨대, 잘 알려져 있듯이 최영이 대규모 선박 건조와 수군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해상방어체제 구축을 강력히 주장하였고,²³⁾ 최무선이 함포 사격에 필요한 화약을 개발하는 등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였다.²⁴⁾ 이와 같이 고려 조정은 바다로 오는 적을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막을 수 있는 해상방어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는 백성의 보금자리인 한반도 ‘영토’에 왜구가 발 디딜 여지를 주지 않고자 했던 고려의 의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구상은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완전한 해상방어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선결(先決)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군의 군역 및 지휘체계 등 조직 제도 정비는 물론, 선박 건조와 유지 비용 마련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이에 따라 고려 조정은 침입해오는 왜구를 해상에서 공세적으로 차단·봉쇄하는 방식이 아닌, 가용한 해상 전력을 활용하여 왜구를 해상에서 1차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연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육상방어를 보완하는 과도기적 방식을 택하였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왜구를 육상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형태의 방어체제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해상 전력을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적에게 불특정 시점의 공격에 대한 경계를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적군의 피로도와 전투력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 고려의 병선이 내구성 및 속도, 운용 능력 면에서 왜선(倭船)보다 월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세적(守勢的) 운용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두 기사는 각각 『세종실록』, 『성종실록』의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고려 말엽의 대외 해상방어에 대한 조선 왕조의 인식 또는 평가로써 당시 병선 운용의 대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병조 참의 박안신(朴安臣)이 상서(上書)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오직 마땅히 지난 일을 거울삼아 뒷일을 염려하여, 그 장구히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하기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이고 왜도(倭島)와 심히 가까와서, 예전 삼국 시대에 있어서도 왜구(倭寇)의 침략은 지난 역사를 상고하

22) 『고려사』 권83, 지(志)37, 병(兵)3, 선군(船軍).

23) 『고려사』 권113, 열전(列傳)26, 제신(諸臣) “瑩曰, ‘吾昔爲六道都統使, 大作戰艦八百餘艘, 欲肅清海寇. 不圖李海等冒請先王, 分領其船, 卒以敗功, 孫光裕領工口船艦, 一遇倭賊, 燒毀殆盡.’” ;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恭愍王)4, 공민왕 22년 10월 “冬十月, 以贊成事崔瑩爲六道都巡察使, 黜郟緡守令, 籍軍戶, 造戰艦, 有罪者, 皆令直斷.”

24) 林容漢, 2005, 앞의 논문, 294~298쪽.

면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엽에 미쳐 왜놈들이 비로소 우리 나라 가까운 섬에 와 붙어서 혹 구걸도 하고 혹 장사도 하여 오늘의 일과 같았었는데, 경인년 [1350]에 협박하여 빼앗기를 시도하고 점점 노략질을 하니, 백성들은 싸움할 줄을 알지 못하여 왜적을 바라보면 달아나서, 바다 연변(沿邊)의 지방은 모두 왜적의 소굴이 되고, 드디어 그 배는 피로한 군졸들에게 주어 언덕을 떠나서 머물러 있게 하고, 여러 고을로 깊이 들어와서 혹 열흘이나 한 달 동안 함부로 마구 죽이고 노략질하다가 제 욕심이 차면 돌아가고, 돌아갔다가 또 다시 와서 봄부터 가을까지 조금도 빈 달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군사를 준비하여 방어하려 하였으나, 왜적의 배는 너무 빨라서 돌리고 가기를 나는 듯이 하여, 동쪽을 지향하는 듯하다가 어느 사이에 돌리어서 서쪽을 침범하니, 우리 군사가 달려 쫓아가도 적을 만나는 일이 대개 적고, 비록 혹 같이 싸워도 이기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깊고 먼 고을도 또한 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²⁵⁾

신[조석문(曹錫文)]이 듣건대 전조(前朝)[고려] 말기에 왜적(倭賊)이 침략하였으나 그때 병기(兵器)를 갖추지 못하여 솟제 대적하지를 못했고, 또 우리 나라 병선(兵船)은 크고 느린데 왜선은 작고 가벼워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우리 배의 밑으로 들어와서 배 밑바닥을 도끼로써 구멍을 뚫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사의 실패가 많았는데, ...²⁶⁾

고려 조정이 구체적인 ‘해방론’을 거론하며 왜구 방비를 위한 전략전술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해상 전력의 우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병선의 속도, 전술 등 해전의 승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서 고려가 열세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상방어 전력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 대목은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이 어떠한 해방 정책을 표방하며 어떻게 대왜(對倭) 해상방어체제를 구축해 갔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새로운 왕조 국가인 조선의 경우, 왜구 방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준비와 조치들을 취하였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 우왕 14년(1388) 5월, 요동정벌의 명을 받고 출정한 우군도통사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 일파를 제거한 뒤,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옹립하면서 정권을 장악했다.²⁷⁾ 얼마 후인 1392년 7월, 새 왕조 조선의 태조

25)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계미).

26) 『성종실록』 권47, 성종 5년 9월 11일(계해).

로 등극한 이성계는 전조(前朝)의 굴레를 벗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하는 한편, 경제·사회 등 제분야의 폐단을 개혁하고 대내·외 정치 및 외교 안정에 힘썼다.

그 중 왜구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고려 말 왜구와의 전쟁을 몸소 경험했던²⁸⁾ 태조는 “국가에서 근심하는 것이 왜적[왜구]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²⁹⁾ 연해의 방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왜구 토벌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³⁰⁾ 예컨대, 수군의 병력 모집과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³¹⁾ 박위(朴葦)로 하여금 병선을 추가로 건조하도록 하였으며,³²⁾ 건조한 선박을 여러 차례 직접 살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³³⁾ 아울러 만호(萬戶)·천호(千戶)·백호(百戶)와 같은 수군 군관(軍官)의 관직 및 품계를 정하는 한편, 고려 말 각 지방별로 파견하던 ‘수군도안무처치사’의 명칭을 ‘수군도절제사’로 변경하는 등 직제(職制) 정비에도 힘썼다.³⁴⁾

태조대 병선의 건조 및 보유 척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왜구 방어에 일환으로써 수군 제도 정비 및 ‘병선’의 확보를 통한 해상방어체제 강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태조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거나 항왜(降倭)를 후대함으로써 왜구 억제에 유도하는 온건책도 병용하였다. 건국 초,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원칙 하에 일본과 교섭하였는데 지방의 다이묘, 대마도 도주 등은 그 교섭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특히 왜구의 근거지와 근접해 있는 규슈(九州)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왜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일본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미나모토 료순[源了俊], 구주탐제(九州探題)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 등에게 왜구 금압을 의뢰하는 동시에 조선인 포로를 송환케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³⁵⁾

27) 육군군사연구소, 2012, 앞의 책, 388쪽.

28) 『고려사』 권116, 열전(列傳)29, 계신(諸臣) ; 『고려사』 권133, 열전(列傳)46, 우왕 3년 5월 ; 『고려사』 권134, 열전(列傳)47, 우왕 6년 9월 ; 『고려사』 권135, 열전(列傳)48, 우왕 11년 9월.

29)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7일(신해).

30)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계미) “惟我太祖大王, 參謀國政, 始設兵船, 以備制賊.”

31) 조선전기 수군제도 정비는李載堞, 1970, 『朝鮮前期의 水軍-軍役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5 ; 오봉근, 1998,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참조.

32)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 5일(무신).

33)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8월 8일(정해) ;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15일(계사).

34) 육군군사연구소, 2012, 앞의 책, 393~394쪽.

35)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7월 13일(경술) ;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0월 11일(정축) ;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7월 10일(신축) ;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7월 25일(갑술) ; 『태조실록』 권

그럼에도 왜구의 침입은 조선 개국 이후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계속되었다. 태조 2년(1393)과 3년(1394)에는 각각 9회와 14회에 걸쳐 침입하였으나,³⁶⁾ 방어태세를 갖춘 조선 수군에 패퇴(敗退)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⁷⁾ 그 와중에 태조 5년(1396) 8월에는 120여 척의 대규모 선단을 이룬 왜구가 경상도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개국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대규모 왜구 선단은 병선 16척을 빼앗고 수군 만호 이춘수(李春壽)를 살해하였으며 동래, 기장 등지를 침탈하였다.³⁸⁾ 얼마 지나지 않아 동년 10월에도 한 차례 동래성을 공격한 바 있는데, 왜구는 이기지 못하고 끝내 퇴각하였으나 병선 21척을 불태우고 수군 만호 윤형(尹衡)과 임식(任軾)을 살해하였다.³⁹⁾

왜구 침입이 확대되고 장기화되자 조선 조정은 더욱 강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태조 5년(1396) 12월, 고려 말에 이어 두 번째로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⁰⁾ 정벌 결과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전말과 성패를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전조(前朝) 고려의 해방(海防) 정책 기조 및 방왜(防倭) 능력에 견주어 고무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며, 비단 정벌이 계획에 그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계획은 조선이 원거리 해상 전력 투사 능력과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후 1399~1400년, 2년의 정중 재위기간 동안, 그리고 태종이 즉위한 초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그 빈도와 규모 면에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하였

12, 태조 6년 12월 25일(계묘) ; 일본과의 사절(使節) 왕래는 조선의 대외정책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50여년 간의 남북조 전쟁이 종식되고 일본이 다시 통일됨으로써 정치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큰 이유이다(孫弘烈, 1978, 앞의 논문, 126쪽).

36) 태조~세종대 왜구 침입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李鉉涼, 1959, 『朝鮮初期倭人接待考(上)』 『史學研究』 5, 31~36쪽).

시 기	횟수								
태조 원년(1392)	2	태종 원년(1401)	4	" 9년(1409)	2	" 5년(1423)	1	" 18년(1436)	1
" 2년(1393)	9	" 2년(1402)	5	" 15년(1415)	1	" 6년(1424)	2	" 19년(1437)	1
" 3년(1394)	14	" 3년(1403)	8	" 17년(1417)	1	" 7년(1425)	2	" 20년(1438)	1
" 4년(1395)	5	" 4년(1404)	6	" 18년(1418)	1	" 8년(1426)	5	" 22년(1440)	1
" 5년(1396)	13	" 6년(1406)	12	세종 원년(1419)	7	" 10년(1428)	1	" 24년(1442)	1
" 6년(1397)	11	" 7년(1407)	6	" 3년(1421)	4	" 12년(1430)	3	" 25년(1443)	2
정종 원년(1399)	4	" 8년(1408)	17	" 4년(1422)	4	" 15년(1433)	1		

37) 國防軍史研究所, 1993, 앞의 책, 185~189쪽.

38)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8월 9일(갑오).

39)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0월 27일(신해).

40)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3일(정해).

다. 그러나 왜구의 활동이 태종 6년(1406)과 8년(1408)에 또 다시 급증함에 따라,⁴¹⁾ 태종 8년부터는 재차 각 도의 병선을 증강하고, 병선과 병기를 점검하는 등 전비태세(戰備態勢) 강화에 주력하였다. 당시 태종이 의정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병선 185척을 추가 건조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⁴²⁾ 뿐만 아니라, 후술하겠지만 태종은 병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병선이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세종대에 이르러 왜구를 억제하고 연안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체계적인 해상방어체제 구축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1418년 즉위한 세종 역시 태종의 대외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기해동정(己亥東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의 연해를 지속적으로 침탈하던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세종 원년(1419) 또 한 차례의 대마도 정벌을 단행한 것이다.

세종 즉위년(1418) 9월 제주의 미곡선 약탈을 비롯하여⁴³⁾ 세종 원년(1419) 5월 충청·전라·황해도 연해에 왜선이 출몰하여 연해민들을 위협하고 식량을 약탈하는 등의 침구활동이 계속되자⁴⁴⁾ 조선 조정은 연해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는 동시에⁴⁵⁾ 대마도 정벌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시작하였다.

상왕(上王) 태종과 세종은 대신들과 대마도 정벌을 의논하였는데, 명(明)을 침공하기 위한 왜구의 본대가 출병한 뒤, 허술한 틈을 타서 대마도 정벌을 감행하자는 결론을 내렸다.⁴⁶⁾ 동시에 각 도의 병선과 군사를 점검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왜구 간첩 방비에도 힘썼다.⁴⁷⁾ 또한 왜적 침입에 대비하여 봉화 체계를 재정비하고, 대마도 정벌 시 허술해질 포구의 방어책을 마련하였다.⁴⁸⁾

세종 원년(1419) 6월 17일, 삼군 도체찰사 이종무가 병선 227척(경기 10척, 충청도 32척, 전라도 59척, 경상도 126척), 장수 이하 관군 669명, 갑사(甲士)

41) 李鎡宗, 1959, 앞의 논문, 31~36쪽.

42)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3월 21일(경오).

43)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9월 9일(병진).

44)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4일(무신)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5일(기유)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7일(신해)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3일(정사).

45)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 12월 20일(을미)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5일(무인).

46)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4일(무오).

47)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5일(기미)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6일(경신)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24일(무진).

48)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26일(경오)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2일(을해).

· 별패(別牌) · 시위(侍衛) · 영진속(營鎭屬)과 잡색군(雜色軍), 원기선군(元騎船軍)을 병합하여 16,616명, 총 17,285명을 거느리고 거제도(巨濟島)를 떠났다.⁴⁹⁾ 그러나 기상이 좋지 않아 다시 귀항하였다가 이틀 뒤인 19일에 다시 대마도를 향해 진군하였다.⁵⁰⁾

대마도 두지포(豆知浦)에 정박하여 크고 작은 왜선 129척을 빼앗고, 그 중 사용할 만한 20척을 노획하였다. 또한 왜적의 가옥 1,939호를 불태우고 114명의 수급을 베었으며 21명을 사로잡았다.⁵¹⁾ 뿐만 아니라 원정군은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훈내곶(訓內串)을 장악하여 목책을 치고 왜적 잔당을 수색 토벌하였는데, 결국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지 못한 채 동년 7월 3일 거제도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⁵²⁾ 요동으로 북상한 왜구의 주력부대가 대마도로 귀환할 시기가 임박하여, 이들을 조선 연안에서 요격하기 위한 2차 공격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⁵³⁾

동년 8월 20일, 대마도주 도도웅와(都鄙熊瓦)가 항복을 함으로써⁵⁴⁾ 대마도 정벌은 일단락되었다.

기해년의 대마도 정벌은 세종 즉위 초, 태종이 상왕(上王)으로 자리하며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던 시기에 단행되었다. 따라서 일면 세종대의 해방(海防) 정책 기초를 대변하는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조선의 해방 전략전술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 사건임은 분명하다. 원거리 대규모 해상 정벌의 성공은 조선 조정은 물론 전투 단위 병력에게도 적지 않게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는 해상전투에 대한 경험 축적, 자신감 고취 등을 포함하여 조선이 해전(海戰)에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이전의 수세적인 전술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전술 구사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다면, 이후 본격적인 세종 재위기의 해방 전략전술과 해상방어체제의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해진다. 다음 장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49)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17일(경인).

50)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19일(임진).

51)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20일(계사).

52)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7월 3일(병오).

53) 대마도 정벌의 총책임자였던 영의정 유정현은 대마도에서의 승전만을 보고하였는데[『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29일(임인)], 그 이후 소규모 육상 전투과정 중의 패인(敗因)[『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14일(병술)], 이종무의 작전 지휘 오판 등이 밝혀지며[『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16일(무자)] 이들의 치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54)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20일(임술).

Ⅲ. 세종대 대마도 정벌 이후 병선 전술의 변화

흥미롭게도 세종은 기해년(1419)의 대마도 정벌 직전까지 바다로부터 침입해 오는 왜구를 병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공세적(攻勢的)으로 억제하는 전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오히려 상륙한 왜구를 육지에서 요격하는 수세적(守勢的) 전술을 취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기 약 한 달 전, 세종의 언급이다.

각 도와 각 포구에 비록 병선은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방어가 허술하여 혹 뜻밖의 변을 당하면 적에 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환(邊患)을 일으키게 될까 하여 이제 전함(戰艦)[병선(兵船)]을 두는 것을 폐지하고 육지만을 지키고자 한다.⁵⁵⁾

결과론적이지만 세종의 해방(海防) 전술에 대한 의견은 한 달 뒤의 대마도 정벌이라는 군사 행동이 무색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이는 당시 병선 간의 해상 전투는 물론, 병선을 이용한 대규모 병력의 투사 경험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병선의 효용과 필요성 또한 대두되지 못하였다. 세종의 의견에 반대하며 병선을 이용한 해상방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신하들도 있었으나,⁵⁶⁾ 실제 왜구와의 해상전투 결과는 번번이 조선의 병선이 후퇴하거나 피해를 입는 양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질적인 해방 전술의 변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술하였듯이 세종 원년(1419) 6월, 세종은 상왕 태종의 주도 하에 계획된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이를 분수령으로 병선에 관한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일련의 변화들은 대마도 정벌 이전, 세종이 주장한 해방(海防) 기조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55)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4일(무오).

56) 관부사 이종무(李從茂), 찬성사 정역(鄭易)은 “우리나라는 바다에 접해 있으니, 전함[병선]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전함[병선]이 없으면 어찌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고, 호조참판 이지강(李之剛)은 고려 말의 사례를 들어 “고려 말년에 왜적이 침노하여 경기까지 이르렀으나, 전함[병선]을 둔 후에야 국가가 편안하였고, 백성이 안도하였나이다.”라고 언급하였다[『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4일(무오)].

오래된 선박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조하여 해상 전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내풍성(耐風性) 및 내구성(耐久性), 선속(船速) 등 병선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改良)하고 시험하였으며, 수세적(守歲的)이었던 대왜 병선 전술을 공세적(攻勢的)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왜구 방비에 병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호 지원체제를 유지한 채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선단(船團)의 생존성을 제고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해상 전력 증강이다.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전체 군 병력 96,259명 중 수군이 49,337명(도별 병력 합계)~50,442명(진영별 병력 합계)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따르면 약 10여 종의 병선이 829척으로 조선시대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척수를 보유한 것으로 사료된다.⁵⁷⁾ 관련하여 병선을 추가 건조하는 기사 내용과⁵⁸⁾ 병선 건조용 목재 확보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대목도 확인된다.⁵⁹⁾

둘째, 병선의 성능 개량 및 시험이다. 즉 내풍성 및 내구성, 그리고 특히 선속(船速) 향상에 힘썼다. 우선 당시 조선의 병선은 풍랑 시 전복되기 쉬운 구조였는데, 왜선의 제도에 따라 풍랑 시에는 선미에 꼬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병선의 안정성을 높이고,⁶⁰⁾ 내풍성이 강한 돛을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⁶¹⁾ 또한 병선 외면에 얇은 목재를 덧대 배줄[纜]이 갇아 먹으면 고쳐 대어 선체 본판의 마모를 방지함으로써 병선의 내구연한을 늘리는 한편,⁶²⁾ ‘명(明)’·‘유구(琉球)’ 등 타국의 병선 건조 자재 및 부속, 선체 구조의 장점을 취해 내구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⁶³⁾

특히 병선의 속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세종 2년(1420) 5월 12일, 동년 11월 17일 두 차례의 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속(船速) 개량에 착수한다. 세종 2년 11월 17일 기사에서는 각 도의 병선이 왜선보다 속도가 느려 추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호군 윤득민(尹得民)에게 속도가 빠른 병선 3척을 만들어 시험하도록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귀화한 왜

57) 李載堯, 1970, 앞의 논문, 116쪽 ; 육군군사연구소, 2012, 앞의 책, 395~398쪽.

58)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7월 28일(신미) ;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10일(임오) ;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11일(계미) ;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25일(정묘).

59)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4월 28일(계유)

60)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27일(신미) ;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27일(경자).

61)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 9월 9일(갑술).

62)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7월 26일(기해).

63)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19일(무오) ;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24일(계해).

인으로 하여금 왜선을 타고 10여 보 가량 먼저 출발하게 한 뒤, 새로 만든 병선 1척씩을 타고 추격하도록 하였는데 병선의 속도가 왜선보다 빨랐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⁴⁾

이처럼 조정에서는 병선의 속도를 전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다. 세종 2년 이후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 만들었거나 개량한 병선의 속도가 향상되었는지의 여부를 꾸준히 시험하는 모습이 그 사실을 방증한다.⁶⁵⁾

셋째, 병선 전술의 전환이다. 앞서 서술한 병선의 속도 향상은 대외 병선 전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병선의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해상전투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는데, 속도가 개량되기 이전에는 왜선을 보고도 추격하지 않거나 추격하지 못해서 아측(我側)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룬 반면, 그 이후에는 왜선을 추격하여 나포하거나 승선해 있는 왜구를 사살해 수급(首級)을 얻는 등의 전과 보고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세종 연간의 해상전투 결과 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병선의 속도 개량 전·후의 전과 보고 양상 변화

구분	시기(연월)	전투 결과 보고 내용	전거
병선 속도 개량 이전	태조 6년 4월	… 도안무사 박자안이 군선(軍船)[병선(兵船)]으로 이를 엄습하고자 하니, 왜인이 깨닫고 드디어 달아났는데, 자안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66)
	태종 7년 11월	… 왜적의 큰 배 한 척이 저도(楮島)를 침구하니,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구성미가 더불어 싸우다가, 바다가 킁킁하고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뒤따라 추격하지 못하였다. 화살에 맞은 자가 3명이나 되니, 화살에 맞은 자를 정성껏 구묘하도록 명하였다.	67)
	태종 8년 1월	… 적선이 각포에 들어와 침노하면 만호·천호가 마음을 써서 방어하지 않고, 적선이 경과하는 각포에서도 요격을 행하지 않고 경과하도록 내버려두니, 심히 설립한 뜻을 잃었습니다. …	68)
	태종 8년 4월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도 도체찰사 등이 바다에 내려간 뒤에 연해 각 고을에 왜적이 가끔 침입하여도 사로잡지 못하니, … ”	69)

64)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5월 12일(기묘) ; 『세종실록』 권10, 세종 2년 11월 17일(신사).

65)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7월 26일(기해) ;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5월 14일(정축) ;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9월 23일(정유).

구분	시기(연월)	전투 결과 보고 내용	전거
	세종 원년 6월	선지(宣旨)하기를, “고만량 만호 황언이 거느린 병선 10여 척을 가지고 도적을 보고도 추격하지 않고, 충청도 도절제사 도도진 무 김수지와 경력 김이공이 응전하기를 너무 늦게 하였으니, 의금부로 하여금 심문케 하라.” 하였다.	70)
	세종 원년 7월	… 적선 두 척이 안흥량에 와서 도적질하며 노략질한다는 것을 듣고도, 겁이 나서 곧 군사를 내지 아니하여, 하나도 잡지 못하였고, 권은 전라도 공선(貢船) 9척이 고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는데, 병선을 영솔하여 호송하기를 꺼리다가 적에게 빼앗기고, 또 적이 안흥을 노략하며 남으로 내려가도 또 제때에 쫓아가 잡지 않았으니, …	71)
	세종 원년 12월	… 선군은 모두 용렬하고 재주 없는 자뿐입니다. 만약 왜적을 만나면 추격하여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왜적에게> 해침을 당하는 바 될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	72)
병선 속도 개량 이후	세종 4년 7월	이때에 왜선(倭船)이 전라·충청 양도의 섬 가운데 출몰하면서, 병선(兵船)을 보면 도망하여 피하고, 사선(私船)을 만나면 노략질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만일 좋은 장수가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빠른 사선(私船)을 타고 바다 가운데 나아가서 <왜선>을 꺾어 내어, 역센 활과 단단한 화살을 쏘고 겸하여 화포를 발사하면, 거의 다 잡을 수 있을 것이요, 비록 잡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우리 사선을 경홀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곧 상호군 김우생을 전라도 해도 찰방, 대호군 신득해를 충청도 해도 찰방, 윤득민을 경기도 해도 찰방에 임명하고, 각각 본도의 유능한 선군을 골라 사선(私船) 5척을 장비하고, 매 척에 30명씩 태워서, 합계 15척이 번갈아 하루에 세 차례씩 나서서 도적질하는 왜놈들을 전라도 등 해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	73)
병선 속도 개량 이후	세종 5년 10월	전라도 처치사 윤득홍이 진무 전 만호 이귀생으로 하여금 달려와 계하기를, “왜적 14척의 선박이 고도(孤島)에 숨어 있는 것을 신이 병선을 영솔하고 세 길로 나누어 나가니, 적은 우리 배 한 척이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즉시 와서 포위하고 접전하므로, 우리 배 여러 척이 계속하여 쫓아가니, 적이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도로 돛을 올리고 달아나는 것을 여러 배가 함께 추격하다가, 귀생의 배가 이를 뒤쫓아서 적의 배 한 척을 나포하고, 드디어 적의 머리 8급을 베니, 바다에 투신한 자가 13인이었나이다.” …	74)

구분	시기(연월)	전투 결과 보고 내용	전거
	세종 6년 9월	전라도 수군 도안무처치사 윤득홍이 녹사 전정리를 시켜서 달려와 계하기를, “이번 9월 12일에 왜적의 배 12척이 서여서도 (西餘鼠島)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신이 병선을 영솔하고 협공하여 고초도(孤草島) 동쪽까지 추격하여 적선 한 척을 잡고, 머리 5급을 베었으며, 물에 빠져 죽은 놈이 16명이요, 또 군관 전사직 정승립을 시켜 병선 4척을 영솔하고 쫓게 하여, 또 적의 배 한 척을 잡고, 머리 13급을 베었습니다.” ...	75)
	세종 6년 11월	봉상 소윤 고득중을 보내어 제주 도안무사 김소에게 내온과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왜구를 쫓아내고 배를 포획한 상이었다.	76)
	세종 7년 3월	경상 우도 처치사가 계하기를, “2월 21일에 왜선(倭船) 1척이 연화도(蓮花島)로부터 욕지도(欲知島)에 이르는 것을, 진무 이권·황윤후, 부사정 김을만으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추격하게 하여, 외마흘두(外麻屹頭)에 이르러 왜적의 머리 2급을 베고, 또 12인을 사살(射殺)하니, 나머지 6인은 물에 투신 익사하였습니다. 드디어 왜선을 취하여 김을만으로 하여금 끌어오게 하고 ... ”	77)
	세종 10년 10월	병조에서 경상우도 처치사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왜선(倭船) 1척이 거제의 남방에 있는 주원도(周原島)에 와서 정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격하여 6명을 사로잡아 가두었고, 배와 그 배에 적재한 물건은 다 몰수하였습니다. ... ”	78)
	세종 16년 4월	공조 참의 장우량이 상서하기를, “요즈음 신이 경상도 수군 처치사에 임명하심을 입사와 일에 타당치 못한 것이 있기로, 삼가 아래에 열거하여 아뢰옵나이다. 1. 선군(船軍)은 생명을 물 위에 붙이고 있어, 한번 왜적을 만나게 되면 동쪽으로 쫓고 서쪽으로 쫓아가되, 죽인 뒤에야 그 치오니, 사람의 궁액이 이보다 더함이 없나이다. ... ”	79)

- 66)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6일(무자).
- 67)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1월 8일(무오).
- 68)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1월 2일(신해).
- 69)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4월 10일(무자).
- 70)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6월 2일(을해).
- 71)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7월 22일(을축).
- 72)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2월 16일(병술).
- 73) 『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7월 21일(병자).
- 74)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0월 3일(경술).
- 75)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20일(임진).
- 76)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1월 7일(무인).
- 77)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3월 7일(정축).
- 78) 『세종실록』 권42, 세종 10년 10월 16일(갑오).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고 그 이후 세종 2년(1420) 속도가 향상된 병선을 시험하는 등의 제반 성능 개량이 거듭되기 이전에는 왜선을 추격하지 않거나 응전(應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주로 아축이 피해를 입었다. 반면, 병선의 성능 개량 이후에는 왜선을 추격하여 나포·공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전투 결과 보고 역시 왜적의 수급을 베고 전리품을 노획하였다는 내용으로 변화하게 된다.

심지어 왜구와의 전투에서 패한 경우에도 ‘추격하다가 패전’하였다는 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⁸⁰⁾ 이는 기존에 왜선을 추격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조선의 병선이 왜선보다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추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세종대 이전에 ‘왜선을 보고도 추격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은 조선의 병선이 왜선을 추격·나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따라 왜구 억제에 있어 병선의 효용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원년(1419)의 대마도 정벌을 계획, 준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병선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속도 등 병선의 성능을 개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항해와 왜구 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비로소 왜선을 추격하여 공격·나포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 22년(1440) 5월 26일, 경상감사의 건의가 주목할 만하다.

매양 병선에 ‘추왜선(追倭船)’ 세 글자를 새기었고, 선군도 또한 항상 ‘추왜선’이라고 부르는데, 왜객의 왕래가 대개 각 포(浦)를 경과하게 되니 반드시 보고 들을 것입니다. 지금 무수(撫綏)하는 때를 당하여 먼저 의심나는 것을 보이면 원수의 틈이 생길까 두려우니, 청하건대 이름을 고칠 것입니다.

병선에 새긴 ‘추왜선’이라는 명칭이 왜인(倭人)들의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을 바꾸자고 건의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추왜선(追倭船 : 왜선을 추격하는 배)’에서 ‘별쾌선(別快船 : 속도가 빠른 배)’으로

79)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1일(무진).

80)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0월 7일(무신). “全羅道處置使報：‘左道都萬戶梁漸追倭賊于釜島戰敗’”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대마도 정벌 이후 변화된 대외 병선 전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병선으로 왜선을 추격하여 공격·나포하는 전술의 구체적 양상은 어떠하였을까? 이에 관해서는 세종 5년(1423) 10월 3일 전라도 처치사 윤득홍(尹得洪)의 보고와 세종 7년(1425) 3월 7일 경상우도 처치사 이순몽(李順蒙)의 보고가 참고된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고도(孤島) 근처의 왜선을 추격 나포한 전과를, 욕지도(欲知島)에 출현한 왜적을 섬멸한 전과를 보고하며, “병선을 영솔하고 세 길로 나누어 나갔다.”, “진무 이권(李權)·황윤후(黃允厚), 부사정 김을만(金億萬)으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추격하게 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병선을 대략 세 개의 편대로 나누어 편성하고 상호 지원태세를 유지한 채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⁸¹⁾

이러한 편대 편성은 한정된 해상 전력으로 보다 넓은 해상 면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유용하다. 하나의 선단으로 뭉쳐 움직일 때보다 각각의 편대로 나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이동할 때, 왜선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거리가 증가한다. 즉 해안 정찰 및 초계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속(船速)의 우위가 보장된 조건 하에 하나의 편대가 왜구의 선박들과 조우하였을 때, 나머지 편대의 공격 침로 확보가 용이하여 다각에서의 협공(挾攻)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에도 효과적이다. 예컨대 사전에 각 편대의 유사시 혹은 필요시 임무를 지정하여 인명 구조, 조운선 호송 등 특수임무 수행 소요가 발생하면, 해당 임무를 맡은 편대가 그것을 수행하고 나머지 편대는 본래의 임무에 임함으로써 왜구 방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편대를 구성하고 있던 병선의 종류 중 ‘비거도선(鼻居刀船)’은 당시 왜적을 추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거도선’의 용례는 세종 5년(1423) 1월 5일 기사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경상좌도 각 포에 ‘비거도선’을 건조해 운용하였다.⁸²⁾ 그 이후에도 ‘비거도선’에 관한 내용이 다수 산견되는 바, 아래의 세종 12년(1430) 5월 19일 기사를 통해 그 용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비거도선(鼻巨刀船)은 고기를 잡고 왜적을 쫓는 데에 매우 편리하오나, 그러나

81)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0월 3일(경술) ;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20일(임진) ;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3월 7일(정축).

82)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1월 5일(정해).

병기(兵器)를 신지 않아서 만약 적선(賊船)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검선(劍船)에는 한 자 되는 창과 칼을 뱃전에 별려 꽂아서, 적이 칼을 뽑아 들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며, 검선 1척마다 비거도선 2, 3척을 쫓아 따르게 하여 싸움을 돕게 하며, 만약 왜적을 보거든 비거도선으로 급히 쫓아 붙잡게 하고, 검선이 따라서 급히 치면 왜적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⁸³⁾

‘비거도선’은 속도가 빨라 왜적을 쫓는 데 유용하나 병기를 신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검선’ 1척당 2~3척의 ‘비거도선’을 함께 편성하여 왜선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즉 당시 대왜 병선 전술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은 ‘검선’과 그보다 작은 규모의 선박인 ‘비거도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세종 26년(1444) 윤7월 22일 충청도 처치사의 보고를 통해 병선 1척에 승선하는 선군(船軍)의 수효가 60명임을 알 수 있는데,⁸⁴⁾ 병선 중 어느 종류의 선박에 대한 인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음 기사를 통해 당시 대왜 병선 전술에 동원된 선박의 대소(大小)와 대략적인 승선 인원을 유추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대(大)·중(中)·소(小)의 배에 각각 비거도선이 있는데, 비거도선은 본선(本船)의 대소에 따라 만들되, 혹은 통나무[全木]로 만들기도 하여 행선(行船)할 때는 본선 안에 실었다가, 쓸 일이 있으면 곧 내려 놓는데, 우리 나라의 병선은 본디 몸이 모두 크고 또 비거도선을 배 꼬리에 달고 다니므로, 배가 다니기에 느릴 뿐 아니라, 큰 바람을 만나면 능히 구조할 수 없으며, 잡아 맨 줄이 혹 끊어지면 버리고 가게 되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대선(大船)·맹선(猛船)·검선(劍船)에는 모두 크게 만든 비거도선 및 전목(全木) 비거도선을 각각 1척씩 두어, 포구에 머물 적에는 큰 비거도선을 쓰고, 행선(行船)할 적에는 전목 비거도선을 쓰도록 하되, 배 위에 신고 다니게 하옵소서.⁸⁵⁾

이 기사에서는 ‘비거도선’ 운용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여러 나라의 대(大)·중(中)·소(小)의 배’를 당시 조선의 ‘대선(大船)·맹선(猛船)·검선(劍船)’에 상정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세종 26년(1444) 윤7월 22일 기사에서 확인된 60명의 선군(船軍)이 승선하는 병선은 중형 선박인 ‘맹선’

83)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19일(무오).

84) 『세종실록』 권105, 세종 26년 윤7월 22일(기해).

85)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19일(무오).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국대전』 「병조(兵曹)」 제도병선조(諸道兵船條)의 선박 분류와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해진다.

조선전기에 왜구를 토벌하기 위하여 ‘대선(大船)’·‘중대선(中大船)’·‘중선(中船)’·‘쾌선(快船)’·‘맹선(孟船)’·‘별선(別船)’·‘추왜별맹선(追倭別孟船)’·‘추왜별선(追倭別船)’ 등 여러 종류의 병선들이 건조되었으나,⁸⁶⁾ 이러한 선박들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조 7년(1461) 10월 신숙주가 각지의 선박을 개량하여 전투와 조운에 겸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⁸⁷⁾ 이에 따라 세조 11년(1465)에 ‘병조선(兵漕船)’이 개발되었는데, 이후 『경국대전』 반포를 계기로 하여 ‘대·중·소맹선’으로 개명되어 ‘맹선’은 약 1세기 동안 전투와 조운을 겸하여 사용되었다. 왜구 진압 시에는 전투용으로써, 평상 시에는 조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은 이에 관한 규정을 법전인 『經國大典』 및 『續大典』에 명시하고 관리하였다.⁸⁸⁾ 『경국대전』에 기록된 조선 중기의 ‘맹선’의 각 지역별 배치 및 척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각 지역별 ‘맹선’의 배치 및 척수(『經國大典』 「兵曹」 諸道兵船條)

선종 \ 지역	경 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계
大 猛 船	16	11	20	22	7	·	·	4	80
中 猛 船	20	34	66	43	12	·	2	15	192
小 猛 船	14	24	105	33	10	14	12	4	216
無軍大猛船 ⁸⁹⁾	·	·	·	·	·	·	·	1	1
無軍中猛船	·	·	·	·	·	·	·	3	3
無軍小猛船	7	40	75	88	10	2	9	16	247
총 계	57	109	266	186	39	16	25	43	739

승선 인원은 각각 대맹선이 80명, 중맹선이 60명, 소맹선이 30명이었다.⁹⁰⁾ 따라서 세종 26년(1444) 윤7월 22일 기사에 등장하는 병선은 당시의 ‘맹선’, 즉 『경국대전』 분류 상의 ‘중맹선’ 규모에 해당하는 선박이었을 것이고, 세종

86) 『세종실록』 「지리지」.

87)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0월 2일(무진).

88) 『경국대전』 권4, 「병조(兵曹)」 제도병선조(諸道兵船條) ; 『속대전』 권4, 「병조(兵曹)」 제도병선조(諸道兵船條).

89) 무군대·중·소맹선(無軍大·中·小猛船)은 실전용이 아닌 예비 선박 개념으로 이해된다.

90) 『경국대전』 권4, 「병조(兵曹)」 제도병선조(諸道兵船條).

대 해방 주력 선종이었던 ‘검선’과 ‘비거도선’은 『경국대전』 분류 상의 ‘소맹선’ 일 가능성이 크다.

위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맹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1척 당 약 30여 명이 승선하는 ‘소맹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세종대 중·소형함 위주의 대왜 병선 전술 운영의 자취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세종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조정에서 “국가에서 처음 병선을 만들어 요해지에 정박하게 하고자 함은 구적(寇賊)을 막을 뿐이요, 바다 밖까지 멀리 쫓으라는 명령은 없었사온데, 지난번에 한 두 장수가 바다 밖까지 멀리 쫓아가서 요행으로 성공하여 혹은 은상을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병선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왜 해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수군 만호, 천호 등에게 병선을 가볍게 움직이지 말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⁹¹⁾

요컨대, 세종대 대마도 정벌 이전에는 조선 조정이 수군 병력 모집과 유지, 병선 건조 등 해상전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왜구의 위협에 대비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채 수세적인 해방 체제를 운영하였다면, 대마도 정벌 이후에는 병선 성능 개량 등을 거쳐 중·소형선 위주의 병선을 공세적으로 운영하며, ‘선속(船速)’ 우위에 기반한 추격 및 공격·나포 전술을 구사하였다.⁹²⁾ 이로써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남해안 지역, 특히 연안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세적 전술에서 공세적 전술로의 전환을 통해 ‘제해권’을 장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병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즉 왜구의 침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전략전술적 요충지 확보의 중요성은 이미 인류의 전쟁·전투사에서 증명된 바 있다. IV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91)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0월 24일(을해).

92) 중·소형 병선은 속도 측면에서 우세한 장점을 지녔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중종실록』 중종 16년 5월 7일의 기사 내용처럼 ‘군사를 많이 태우지 못하고 적군이 기어오르기 쉬운’ 단점이 있었다[『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5월 7일(무오) “참찬관 서후(徐厚)가 아뢰었다. … ‘소선은 다른 배를 쫓기에는 빠르지만, 육박하여 싸우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또 전사를 많이 태우지 못하고 적군이 기어오르기도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세종대 이후에 또 한번의 군용 선박 운용 전술 및 전투 방식 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내용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Ⅳ. 병선의 전진배치와 방어거점의 이동

해방 전략전술에서 해상전투 플랫폼의 정박 위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전쟁·전투사에서도 여러 사례를 통해 요충지 확보의 중요성이 증명된 바 있고, 여러 국가들은 해군 부대의 정박 거점을 이동함으로써 당국의 해양전략을 표방하기도 한다. 전투 선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해전의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투 선박의 정박 위치와 그것의 변화 양상은 해당 국가의 해양 전략전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종대 이에 관한 논의와 실제 조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주목할 만하다.

세종대 병선 배치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태종대 병선 배치와 관련된 정책, 제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병선 배치의 이동은 세종대에 이르러 이루어지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앞서 태종대부터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에서 확인되는 병선 이동 관련 사례는 두 건으로, 태종 7년(1407) 7월 27일 경상도 병마절제사의 건의와 태종 8년(1408) 12월 24일 전라도 수군도절제사의 건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왜인이 왕래하는 경상좌도 지역에 혹시 모를 사변에 대비하여 울주 연해 개운포의 병선을 장생포로 옮겨, 긴급할 때 서로 지원 가능한 출동거리를 유지하자고 건의한 것이고,⁹³⁾ 후자는 병선 이동과는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라도 수군도절제사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옥구[군산]의 수영을 무안현의 대굴포로 옮기자고 건의한 것이다. 옥구는 지리적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진수(鎭戍)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도(海島)의 중앙인 무안현의 대굴포로 수영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⁹⁴⁾

전자는 곧바로 시행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태종이 해당 사안을 전라감사에게 내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태종대 병선 이동

93)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27일(무인).

9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2월 24일(정유). 무안현의 대굴포는 외해 쪽이 아닌 강어귀를 따라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내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후 세종 11년, 세종 14년에 “대굴포는 다만 배를 정박하는 곳이 깊고 멀 뿐만 아니라, 포(浦)가 또한 굽고 좁아서 또한 그때그때에 응변하기가 어렵다.”, “대굴포는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 바다에 떨어지기가 거의 2식경이나 된다.”라는 이유로 대굴포의 병선을 외해 쪽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확인된다[『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12일(정해) ;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8월 5일(신묘)].

관련 사례는 위와 같이 확인되지만, 뚜렷한 경향성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배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태종 7년(1407) 조정에서는 각 포를 매일 순행하며 군사를 무휼하기 위해 수군찰방을 설치하였고,⁹⁵⁾ 이것이 이듬해(1408)에 이르러 ‘海道찰방(海道察訪)’이라는 이름으로 하삼도 지역에 한 명씩 파견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海道찰방에게 고찰사목을 내려 사목에 의거 군비(軍備)를 규찰·점검하도록 하였다.⁹⁶⁾

태종 14년(1414)에는 손실경차(損實敬差)의 임무를 겸해海道찰방을 각도에 파견하였는데, 이 때海道찰방에게 내린 사목(事目)의 내용이 주목된다. 아래 표는 태종 8년(1408)과 태종 14년(1414)에 내린 고찰사목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태종 7년·14년海道찰방의 고찰사목 조항

구분 시기	태종 8년(1408) ⁹⁷⁾	태종 14년(1414) ⁹⁸⁾
고찰 사목 조항	① 선군 봉족의 균정(均定) ② 만호·천호·색장의 규찰 ③ 각 고을의 수령 규찰 ④ 각 포(各浦)의 선박 및 화통·화약 관리여부 점검 ⑤ 왜구가 지나가도 요격하지 않는 만 호·천호 논죄 ⑥ 기선군 포상 ⑦ 봉화 및 해망 체제 정비 ⑧ 군사(軍事)를 그르친 군관 대상 치 죄 규정	① 군기·마필 점검 ② 시위군·기선군 점검 ③ 병선과 육물(陸物) 상고 ④ 병선 정박 요해처 및 병선 척수 ⑤ 선군을 궤립(闕立)한 수령 및 급유 (給由)한 만호·천호 적발 ⑥ 각진·고을의 월과군기 점검 ⑦ 월과군기가 부실할 경우 관리 추핵 ⑧ 성자(城子)를 수리하지 않은 수령 논죄

태종 8년(1408)과 14년(1414)의 사목은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시기에 중점을 두고 있던 사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위 두 사목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특히 주목되는 차이점은 태종 14년(1414)에 이르러 ④ ‘병선 정박 요해처 및 병선 척수’에 대한 점검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병선의 척수, 관리 상태 외에도 ‘병선 정박 요해처’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음을 방증한다. 즉 이때부터 병선의 배치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선 이동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병선의 배치 변화는 세종대에 접어들며

95)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6월 1일(계미).

96)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1월 2일(신해).

97)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1월 2일(신해).

98)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7일(정미).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세종대 병선 배치 변화(정박지 이동) 현황

지역	순번	시기	구(舊) 정박지(●)	신(新) 정박지(▲)	이동 사유
전 라 도 [그림1]	① ⁹⁹⁾	세종 4년	-	회령포[신설]	회령포가 <u>요해지</u> 임.
	② ¹⁰⁰⁾	세종 5년	진례량	내례량	거제 서면의 평산포와 마주보고 있어 <u>연화·고각</u> 으로서 비상상황 전파가 가능하여 <u>적군을 막는데 용이함</u> .
	③ ¹⁰¹⁾	세종 7년	장성포	여도	내례와 돌산이 거리가 가까움.
			소마포	주포	<u>조수간만의 차,</u> 주포는 <u>왜적이 처음 닿는 곳</u> .
			고조놀이	원포	주변 주민 거주 보호.
			검모포	합평	-
			원곶[폐지]		-
	④ ¹⁰²⁾	세종 9년	여도	사랑	사랑이 <u>요해지</u> 이며, 그 주변 둔전 보호.
	⑤ ¹⁰³⁾	세종 11년	사랑	독대량[취소]	독대량은 배 정박은 용이하나, 왜 적이 처음 닿는 곳이 아니므로 <u>변 고 발생시 대처 시간이 오래걸림</u> .
			대굴포	여도	대굴포는 정박지가 깊고 멀리 있으 며, <u>浦가 좁고 굴곡져 신속한 대응 이 어려우나, 여도는 적의 변고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요해지</u> .
	⑥-1) 104)	세종 14년	적량	미조항·장항 ·동모포	적량은 <u>긴요하지 않고</u> , 미조항, 장 항, 동모포 등은 병선이 필요함.
	⑥-2) 105)		대굴포	목포	대굴포는 정박지가 깊고 멀리 있음.
	⑥-3) 106)	세종 14년	목포	소가포	-
				주량	-
	⑦ ¹⁰⁷⁾	세종 15년	-	소흘라량[신설]	주변 주민 보호, 토지 경작.
-			인포[신설]		
⑧ ¹⁰⁸⁾	세종 16년	남도포	삼내도	제주의 내왕에 바람을 피하는 곳, 진도를 남북으로 바라보고 있음.	
⑨ ¹⁰⁹⁾	세종 20년	주량	남도포	-	
⑩ ¹¹⁰⁾	세종 21년	소흘포	발포	<u>방수하기에 적합함</u> .	

지역	순번	시기	구(舊) 정박지(●)	신(新) 정박지(▲)	이동 사유
경상도 [그림2]	① 111)	세종 5년	평산포	-	-
	② 112)	세종 7년	탐포	오아포	풍랑, 물살.
	③ 113)	세종 8년	서생포	염포	편리성.
	④ 114)	세종 9년	월송포	수신포·삼척포	수신포 때문에 수신포와 삼척포로 병선을 나누어 소속시켰으나, 월송포가 왜적이 처음 닿는 곳이라 원위치.
			수신포·삼척포	월송포	
	⑤ 115)	세종 10년	정포	경상좌도	경상좌도의 병선은 물길에 익숙지 않아 경상우도의 정포에 있는 병선을 보냄.
	⑥ 116)	세종 13년	내이포	-	-
	⑦ 117)	세종 14년	남해도·노량·흥신도·사랑	-	-
	⑧ 118)	세종 16년	-	곡포[신설]	적침에 대비하기 위함.
⑨ 119)	세종 20년	구량량	사랑	-	
강원도	120)	세종 5년	향포	연곡포	-
충청도	121)	세종 10년	대산포	파치포	-
	122)	세종 24년	-	안흥량[신설]	-
함길도	123)	세종 8년	미진포	도안포	토사로 인한 수신포.
황해도	124)	세종 7년	퇴곶	무지곶 서쪽	조수간만의 차, 무지곶 서쪽이 요해지.
			아랑포	존어포[취소]	존어포는 방어상 긴요한 곳이지만 하나 물과 샘이 없고, 바다에 노출되어 병선을 은폐할 수 없음.
			아랑포	침향곶	봉화를 바라볼 수 있음,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음.
			대곶	오차포[취소]	오차포는 요충지이나 포구가 좁고, 강 어구가 모래땅이어서 맞출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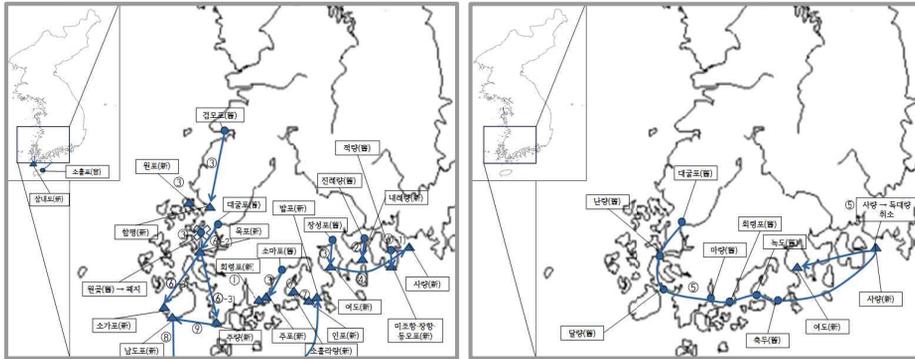
지역	순번	시기	구(舊) 정박지(●)	신(新) 정박지(▲)	이동 사유
황해도	125)	세종 21년	아랑포·풍천량·광암량	송명포	조수간만의 차, 병선 정박의 용이성, 인근 주민 보호, 요해지.
			장산곶	인민들이 살고 있는 곳	
			장연·대곶	별서강	
			용진 관량	소강	
	순위량	사포			
126)	세종 22년	용매량·가을포·오예포·광암량	-	-	

위 표를 분석하면, 각 해역별로 병선 배치의 변화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

- 99)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1월 22일(을해).
- 100)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1월 21일(계묘).
- 101)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25일(을축).
- 102)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7월 8일(갑오).
- 103)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12일(정해).
- 104)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16일(갑진).
- 105)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8월 5일(신묘).
- 106)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0월 20일(을사).
- 107)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6월 27일(무신).
- 108)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6월 19일(갑자).
- 109)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1월 10일(을미).
- 110)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11일(무자).
- 111)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2월 25일(병자).
- 112)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7월 11일(무인).
- 113) 『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 4월 5일(무진).
- 114)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7월 16일(임인).
- 115)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1월 4일(정해).
- 116)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28일(기미).
- 117)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17일(을사).
- 118)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1일(무진).
- 119)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0월 1일(임자).
- 120) 『세종실록』 권21, 세종 5년 7월 20일(무술).
- 121)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1월 4일(정해).
- 122)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1월 23일(을유).
- 123)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16일(병오).
- 124)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25일(을축).
- 125)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8일(갑인).
- 126)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3월 11일(계축).

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식별되는 해역은 남해안이다. 세종대 수군에게 ‘전방’이란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열도와 맞닿아 있는 남해안이었을 것이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우도 연해 지역에 걸친 병선 배치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병선 배치 및 변화 양상은 아래 [그림1]과 [그림2]와 같다.

[그림 1] 남해안(전라도 연해) 병선 배치 및 변화 양상



첫째, [그림1]은 전라도 연해 지역의 병선 배치 및 변화 양상이다. 세종대 전반(全般)에 걸친 병선 배치 변화의 요점은 옛(舊) 병선 정박지(●)와 새로 신설되었거나 옮긴 신(新) 병선 정박지(▲)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병선을 내지(內地)에서 왜해(外海)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안 안쪽에 깊숙이 위치하여 외해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조수간만의 차가 커 물이 빠지는 간조 때 포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곳, 외진 곳에 위치하여 다른 포구의 병선 지원이 어려운 곳을 지양하고, 외해에 가까워 왜구에 대한 즉각 대응 차 긴급출동이 가능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으며 수심이 양호하여 병선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곳, 주변 군진과의 거리를 고려해 다른 포구의 병선 지원이 용이한 곳을 찾아 병선을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 때, ‘정박지의 출·입항이 용이한지, 조수간만 차·수심 등이 병선이 활동하기에 적합한지, 주변에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봉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사변 발생 시 지원해 줄 병선의 정박지와는 거리가 적당한지’ 등의 논의는 모두 왜적에 대응하기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컨대, [그림1]의 ⑥사료에서 “다경포(多慶浦)·말흘포(末訖浦)·목포(木浦)·주이포(周伊浦) 등지의 도내 요충지에 수세(水勢)가 또한 순하고 전함(戰艦)[병선(兵船)]의 출입도 편이하니, 기회를 타서 적군에게 대응(對應)할 곳이라

원래 정박하고 있었던 기존 옛(舊) 정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내용은 다수 확인되나, 새롭게 신설된 신(新) 정박지나 병선이 이동 배치된 곳(▲)은 전라도 연해에 비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 연해 지역은 병선을 내지(內地)에서 외해(外海)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는 반면, 경상도 연해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해양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라도에 비해 섬이 많지 않은 경상도 해역, 특히 경상좌도 연해는 전라도 해역에 비해 풍랑과 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소형 위주의 아측 병선은 물론 왜선의 활동에도 적합하지 않았고, 따라서 왜구의 위협도 비교적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 21년(1439) 6월 16일 경상감사의 보고(A)와 동년 9월 2일 동지중추원사 이사검이 올린 비변책 내용의 일부(B)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 도내(道內)의 수어(守禦)하는 형세를 살펴보건대, 각 포의 병선이 비록 상거(相距)가 적당하고, 봉화를 서로 바라볼지라도 서로 구원하기가 어려운 형세이오며, 육지의 방수(防戍)는 상거가 멀어서 기회에 임하여 승리하거나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수어하기에 가장 긴요한 곳으로서 병선을 더 설치할 요해처(要害處)가 비록 많을지라도, 모래와 자갈이 험하게 막혔고 풍랑도 많으므로 병선을 더 설치할 수 없사옵니다.¹²⁸⁾

(B) 경상도 방수(防戍)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도(右道)의 선군(船軍)은 항상 행선(行船)하기 때문에 배에 익숙한데, 좌도의 선군은 바다 가운데에 섬과 곳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행선하지 아니하여 배에 익숙하지 못하고 (...)¹²⁹⁾

경상감사와 동지중추원사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상도, 특히 경상좌도는 풍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섬이 많고 리아스식 해안의 형태를 갖춘 전라도 연해 지역과는 상반된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한 병선 배치 결과가 [그림2]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해안의 병선들이 전진 배치되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전술하였듯이 병선 이동 배치를 위한 움직임은 태종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두 차례의 병선 이동 논의와 해도찰방의 고찰사목 내용 변화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병선의 이동 배치는 세종 4년(1422)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는

128)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6월 16일(임진).

129)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9월 2일(정미).

데, 남해안 해역의 병선 전진 배치는 속도 우위에 기반한 공세적 대외 병선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적합한 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병선의 성능 개량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태종대에 시작된 논의가 발전되어 세종대에 실질적인 병선 배치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전진 배치 과정에서는 ‘해양환경’과 ‘왜구의 위협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동·서해안에서는 병선 배치에 대한 논의가 소략할 뿐더러 뚜렷한 변화 양상이 식별되지 않는다. 다만, 평안도 및 함길도에서는 북방의 여진족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빠른 병선을 만들어 강에서 여진족 방어용으로 운용하는 등의 특징이 확인된다.¹³⁰⁾

요컨대, 세종대 병선의 전진 배치는 수세적 전술에서 공세적 대외 병선 전술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각 해역별 ‘해양환경(조수간만의 차, 수심, 파고 혹은 풍랑, 해저저질 등)’과 ‘적 위협(일본 내부 정세 악화에 따른 왜구의 조선 연해 지역 침입, 약탈)’을 고려하여, 전환된 전술을 구사하기에 적합한 방어거점을 마련해 가는 전략적 구상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여말선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해방론(海防論)’과 해상방어체제 구축 과정을 살피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세종대 병선 운용 양상의 변화와 그 전략전술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국가의 군사(軍事)에 있어 전략전술은 그 국가가 처한 대외정세와 주어진 환경·여건 속에서 군사력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물론 전근대 시대의 ‘전략전술’은 현대전 개념의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검토하기 어렵겠으나, 그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도구로는 일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는 ‘해양력’, ‘제해권’ 등의 개념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말선초부터 시작된 ‘해방론(海防論)’의 논의와 해상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조치들은 그것들과 많이 닮아있다.

130)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6일(계축) ;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5월 21일(경술).

특히 고려 말 소위 ‘경인(庚寅, 1350)의 왜구’로부터 시작된 왜구의 창궐은 ‘해양력’ 제고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였고, 그 이후 고려·조선 조정은 수군 병력 모집 및 수군 제도 정비, 병선 건조, 무기체계 개발 등 왜구 방비를 위한 해방 체제 마련에 부심한다. 부침을 계속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수군 및 병선을 활용하여 세 차례의 대마도 정벌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수군과 그 핵심 전투 플랫폼인 병선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용했다고 보기 힘들다. 세종대 기해동정 이전의 대왜 전투 양상과 전과 보고에 따르면, 병선의 성능과 전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종대 기해동정을 분수령으로 대왜 해방 전략전술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병선의 성능 개량 및 전술 전환, 병선 배치와 방어거점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축적된 해상전투 및 전력 투사 경험을 바탕으로 병선의 속도, 내구성·내풍성 등을 개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속(船速)’의 우위를 점하여 왜선을 추격 공격·나포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수세적 대왜 전술에서 벗어나 중·소형함 위주의 공세적 전술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으로써 ‘병선의 전진배치’, 즉 방어거점을 내지에서 외해쪽으로 옮기는 조치가 실현되었다. 선속의 우위에 기반한 전술 구사와 신속한 왜구 대응에는 병선이 외해쪽에 배치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각 해역별 ‘해양환경’과 ‘적 위협’을 고려해 병선이 정박할 요해처를 적의 조정하는 조선의 전략적 구상이 인상적이다. 이를 통해 조선은 남해안 연해의 ‘제해권’ 확보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듯 ‘평화기를 구가’하던 세종대에도 조선에서는 국방을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여말선초에 견주어 왜구의 침입 규모와 빈도가 현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세종대에 이루어진 전략전술의 변화는 ‘해방사(海防史)’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조선 후기 임진왜란의 승리도 이러한 전략전술의 이해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종대에 초점을 맞춰 서술되어 이후 시기의 군용 선박의 운용과 해방 전략전술의 추이를 고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세종대 병선 운용 및 해방 전략전술의 변화가 일본 정부 및 왜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후의 관계 변화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등을 포괄하여 유기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아 조선시대 해방 전략전술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參考文獻)

1. 사료(史料)

-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2. 저서(著書)

- 신석호, 1959, 「여말 선초의 왜구와 그 대책」, 『국가상의 제문제』 3, 국사편찬위원회
李載稟, 1970, 「朝鮮前期의 水軍-軍役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5
金在瑾, 1977, 『朝鮮王朝軍船研究』, 一潮閣
張學根, 1988, 『朝鮮時代海洋防衛史』, 創美社
車勇杰, 1988,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方相鉉, 1991, 『朝鮮初期 水軍制度』, 民族文化社
國防軍史研究所, 1993, 「倭寇討伐史」, 『民族戰亂史』 9
나종우, 1994, 『한국사』 20(고려후기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하우봉, 1995, 『한국사』 22(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朴元鎭, 1995, 『한국사』 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오봉근, 1998,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육군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 5(조선전기 I)』, 육군본부

3. 논문(論文)

- 李鉉淙, 1959, 「朝鮮初期倭人接待考(上)」 『史學研究』 5
李銀圭, 1974, 「15世紀初 韓日交涉史 研究-對馬島征伐를 中心으로-」, 『湖西史學』 3
孫弘烈, 1975, 「高麗末期の 倭寇」, 『史學志』 9
_____, 1978, 「麗末·鮮初の 對馬島征伐」, 『湖西史學』 6
羅鍾宇, 1980,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 -倭寇를 中心으로-」, 『全北史學』 4
김재근, 1980, 「朝鮮王朝의 水軍」, 『軍史』 1
張學根, 1983, 「朝鮮의 對馬島 征伐과 그 支配政策; 對外關係를 中心으로」, 『海土論文集』 18

- 李相泰, 1988, 「대마도 정벌(對馬島征伐) 고찰」, 『군사』 17
- 羅鍾宇, 1992, 「朝鮮初期의 對倭寇政策」,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紀念論叢』
- 한문중, 1997, 「朝鮮初期의 倭寇對策과 對馬島征伐」, 『全北史學』 19 · 20
- 林容漢, 2005,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군사』 54
- _____, 2009,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 이규철, 2009,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 장준혁, 2014, 「麗末鮮初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의 대마도정벌」, 『역사와 실학』 53

Abstract

Strategic and Tactical Use of Naval Ship for Maritime Defens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Min Jang-w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scussion of maritime defense’ which began to be discusse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aritime defense system. Also it can identify changes in the aspects of the naval ship operation and their strategic tactic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Japanese raiders began a full-scale invasion from 1350 at the late Goryeo Dynasty, So the government realized the need to raise the ‘Sea power’ and to organize the maritime defense system for defending enemy invasion, for example, the reinforcement of naval forces, construction of warships,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and so on, which have achieved remarkable growth while continuing, have also been used to carry out a three-time ‘Conquest of Daemado’ in 1389, 1396, 1419.

Until then, however,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at the naval forces had a systematic and organizational combat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fighting patterns on combat reports before the early days of King Sejong's reign, Our naval forces had no advantage over the Japanese raiders in terms of their capabilities and tactics.

Then, the period of King Sejong marked a watershed in maritime defense history.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of naval battles and force Projections, The paradigm shift of the naval strategic tactics for maritime defense has occurred.

* Lieutenant, Naval Academy, R.O.K Navy.

First, the capability of the naval vessels has improved, for example, ship speed, durability, and weather resistance. Through these efforts, navy forces were able to pursue and attack, destroy enemy's ships by taking advantage of the 'Ship speed superiority'. This has led to tactical shifts from defensive to offensive.

Second, purpose to support offensive tactics, the government put a strategic plan into practice that is the forward depolyment of naval bases from the inland to the coast, considering the 'sea environment' and 'threat'. By doing so, Joseon dynasty was able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This may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of the so-called 'peace period' that King Sejong's era. We need to remember that Joseon dynasty was working hard for its defense. When studying history of maritime defense, these strategic and tactical elements must be fully considered. Only then we can have a coherent understanding of the many naval battles in the past, including the Imjin War(1592-1598).

Key Words : Naval vessel(ship), Naval Operaion, Marine defense system, Strategic tactics, Ship speed, Japanese raiders, Conquest of Daemado, Maritime supremacy, Naval base, Forward deployment.